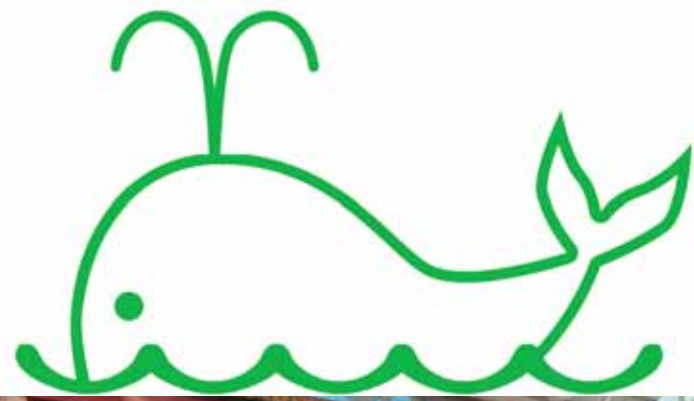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그램
동명동 푸른길공원에 '시민디자인하우스 고래집' 오픈
공예품 판매·시민 휴식처로 활용



고래는 왜 육지로 왔을까?



광주 시민들이 폐선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만든 푸른길 공원은 광주를 대표하는 녹지 공간이다. 최근 동구 동명동 농장다리 인근 푸른길 공원에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다. 재활용품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만든 '시민디자인하우스 고래집'은 2013 광주 디자인비엔날레(11월3일까지)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이 판매되는 장소이자 휴식처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일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디자이너 I am a carpenter' 참가자들이 만든 '시민디자인하우스 고래집'을 오픈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과 학생 50여명은 지난 3개월 동안 70년 된 보급형 한옥을 친환경 메시지가 담긴 공간으로 꾸몄다. 시민들이 비어있던 한옥을 디자인 갤러리 공간으로 재생시킨 것이다. 이 공간은 푸른길 상자텃밭 '장다리' 디자인을 한 작가 신양호씨가 지난 3월부터 작업실로 사용하던 곳의 일부다.

전체적인 컨셉은 푸른길 공원과 나란히 해엄치는 고래다. 친환경을 상징하는 고래가 도심 속에 놀러온다는 의미다. 시민 디자이너들은 한옥 행랑채를 '친환경'과 '도심 재생'의 의미를 담아 고래 형상으로 꾸몄다. 철골 구조물로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고 집과 고물상에서 가져온 프라이팬, 자전거, 고무 대야, 가스통, 컴퓨터 케이스 등으로 지붕과 주변을 꾸몄다.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북극곰 두 마리가 올라가 있는 형태의 대형 고래 꼬리도 만들었다.

고래집 앞에는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로 만든 벤치와 페트병으로 만든 벤치 등 길거리 가구 디자인 제품을 설치했다. 수완고 학생들은 고래집 텃밭에 고래 모양의 생태연못을 설치했고, 주위온 붉은벽돌과 수초 등을 그려넣은 라사이클링 화장실도 만들었다.

간칸이 나눠져 있던 행랑채 내부는 4팀의 시민들이 4가지 컨셉으로 꾸민 디자인샵으로 재탄생했다. 시민들은 한여름 망치로 벽을 두드려 부숴가며 막혀있던 공간을 열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각 공간을 꾸몄다. 행랑채에서 나온 오래된 목재를 사용해 선반을 만들었고, 주위온 재활용품을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디자인샵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밀랍초, 예코백, 도자기 소품 등이 판매된다.

정민룡 프로그래머는 "시민들이 만든 푸른길 공원 인근에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지역 작가와 광주 시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직접 두드려 공간을 재생해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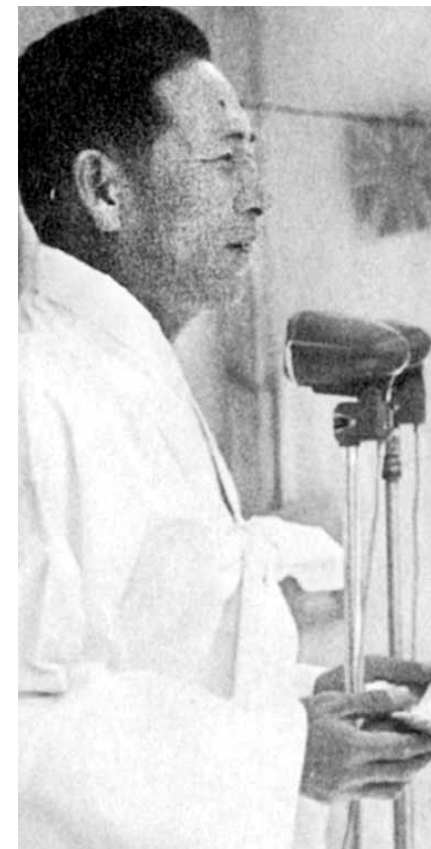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깊은 울림... 전국 명창들의 축제

'임방울 국악제'
6~9일 광주문예회관



故 임방울 명창

1961년 3월 서울에서 진행된 임방울 명창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애도 인파가 몰려들었다.

화려한 무대 대신 민초들이 즐겨 찾았던 장터 등 소박한 장소에서 공연을 했던 그는 늘상 소리를 하다 무대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김제 장터에서 공연을 하다 쓰러진 그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61년 3월 7일 밤 세상을 떠났다.

국악 사상 처음으로 국악예술인장으로 치러진 이날 장례에서 소복을 차려 입은 200여명의 여류 명창들은 구슬픈 소리로 임방울을 떠나보냈다. 그가 부른 '쑥대머리' 한자락에 위로로 받았던 서민들 역시 장례 행렬이 지날 때 함께 애도했다.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1904~1961) 선생을 기리는 제21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린다.

6일 오후 5시5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전야제는 소리꾼 박애리의 사회로 열린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김광복 상임지휘자의 '피리 협주곡'이 연주되며 박애리씨와 소프라노 박성희씨가 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날이 갈수록'과 '아리아리랑'을 선사한다.

또 국창 조상현씨가 판소리 '심청' 중 한대목 들려주며 거문고 병창 '새타령' 등이 이어진다.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결합도 눈에 띈다. 피아니스트 정재일과 한승석씨가 함께 만드는 단가와 피아노 '추억', 국악과 아코디언 연주(이승연·인천 신월초 6년)가 어우러진 '빛고을 아리랑', '목포의 눈물', 국악과 탭댄스 공연도 열린다. 피날레 무대는 광주시립국극단의 '모듬북 협주곡'이 장식한다.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국악제 본선 경연은 SBS(오후 2시~5시)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다. 판소리 명창부 등 국악 경연과 함께 조선대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의 '화풍연가', 소리꾼 채수정의 판소리, 오갑순의 가야금병창 등 특별 공연이 열린다.

학생부와 일반부 경연은 7일과 8일 이틀간 5·18기념문화센터와 광주향교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19세 이상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임방울판소리 장기자랑은 6일 오전 9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임방울 선생의 대표곡인 '쑥대머리'와 단가 '호남가', '추억' 등을 부르면 된다.

올해는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에게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오른 2000만원과 순금 트로피를 수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마실' 리뷰 모집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문화행사 리플렛 '문화마실'에 실릴 50자 리뷰를 모집한다.

광주 지역에서 열린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감상평을 적으면 된다.

선정된 리뷰는 다음 호 문화마실에 실리며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작성한 리뷰는 이메일(gjcfart@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00. /이보람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